

2014.03.21

주간

주요 베트남비즈니스 정보

Contents

I. 베트남내 기업동향

- ◆ 한국진출기업 동향
- ◆ 외국진출기업 동향(한국진출기업 제외)
- ◆ 베트남기업 동향

II. 베트남 산업/정책/기타 주요뉴스



베트남사무소



I. 베트남내 기업동향

◆ 한국진출기업 동향

- ▶ 한전, 중소기업과 베트남 산업단지 건설 추진
- ▶ 삼성·LG 전자 베트남 생산 거점화... 현지 휴대폰 수출 1 위 공신
- ▶ 내년부터 베트남에 한국경륜 경주영상 송출
- ▶ KIST, 한국·베트남 과학기술원 청사진 공개
- ▶ 설립에 370억 투자...ODA 역대 최대 규모
- ▶ 한국, 경제-사회 발전 경험 공유
- ▶ 박삼구 회장 '우호 훈장' 수여 받아

◆ 외국진출기업 동향(한국진출기업 제외)

- ▶ 베트남,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로 산업단지 활성화
- ▶ 미국·베트남 군사공조 가속
- ▶ 일본·베트남, 北남치문제·해상경비 등 협력키로
- ▶ 베트남, 러시아와 핵에너지연구센터 공동 건설
- ▶ SBV, 외국인 간접 투자는 베트남 동화 기준
- ▶ 베트남-EFTA 간 FTA 연말 타결될 듯
- ▶ 일본, 베트남 예술 분야 대폭 지원
- ▶ 외국인 광고회사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 비용

◆ 베트남기업 동향

- ▶ 82 개 기업 국가 품질 상 받아
- ▶ 베트남 중앙은행 재할인율 0.5%포인트 인하

II. 베트남 산업/정책/기타 주요뉴스

- ▶ 2014 년 1~2 월 외국인 방문객 33.4% 증가
- ▶ 성장의 또다른 기회...동남아서 영그는 ODA 사업
- ▶ 베트남, 2013 년 천연고무 생산량 세계 3 위



대한상공회의소

- ▶ 중국·대만, TPP 타결 겨냥 베트남 섬유투자 확대
- ▶ 하노이, 34 건의 프로젝트와 함께 토지사용권 경매 예정
- ▶ 언론기관 설립허가서 발급 일시적으로 중지
- ▶ 베트남 오토바이시장, 2년 연속 부진에 이어 올해도 침체 예상





I. 베트남내 기업동향

◆ 한국진출기업 동향

한전, 중소기업과 베트남 산업단지 건설 추진

- 한국전력과 중소 협력업체들이 베트남에 산업단지 건설을 추진함. 26 일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현지 산업단지 건설 방안을 놓고 현재 한전과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 협의 중임
 - 베트남 산업단지는 베트남 전력공사(EVN)가 원하는 변압기와 차단기, 배전반 등 품목별 10 개 중소기업체로 이뤄짐
 - 자금은 한전과 EVN, 중소기업이 공동 부담하며 20 년간 국내 기업이 운영하다 베트남에 넘기는 방식임
 - 한전과 조합은 올해 안으로 현지 조사단을 파견, EVN 과 협의 후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임
 - 베트남 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임
 - 이미 3 년 전에 대상 부지 물색과 자금 조달 등을 검토한 바 있어 실제 추진은 수월할 것으로 조합 측은 내다보고 있음
 - 이재광 조합 이사장은 “올해는 정부와 한전, 발전회사 등의 지원을 받아 해외시장 개척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해외 전시회와 수출상담회도 11 건으로 늘렸다”고 말함
- * 출처: Lifeplaza, 03.14

삼성·LG 전자 베트남 생산 거점화... 현지 휴대폰 수출 1 위 공신

- 삼성·전자가 베트남 투자를 늘려 현지 무역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난해 베트남 수출 1 위 품목에 휴대폰이 올랐으며, 그 중 98% 이상의 수출액이 삼성전자에서 나옴
- 3 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초 베트남 타이응웬성 옌빈공단에서 건설 중인 제 2 휴대폰 생산공장의 상업가동에 들어감



대한상공회의소

- LG 전자도 오는 9 월 하이퐁 경제특구 복합공단에서 백색가전과 함께 휴대폰도 생산할 계획임
- 삼성전자는 2015 년까지 자체 스마트폰 생산의 40%를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향후 80%까지 그 비중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알려짐
- LG 전자도 9 월부터 생산분은 내수용이지만, 공단 부지 중 일부를 휴대폰 생산시설 부지로 확보해 뒤 향후 수출용 생산확대 가능성이 제기됨
- 이들 국내 기업을 포함해 외자투자 확대가 이어지며 베트남은 2012 년 처음으로 무역수지 흑자 기조로 돌아섬
- 앞으로도 외국 투자기업들의 고부가가치 제조업 투자로 인해 수출구조 고도화가 진행되며 무역수지 흑자는 지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실제 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으로 지난 4 년간 1 위 자리를 고수해온 섬유·의류가 지난해 2 위로 하락하고 휴대전화가 1 위 수출 품목으로 부상함
- 베트남 휴대전화 수출액은 2011 년 68 억 8500 만달러에서 2012 년 127 억 1700 만달러, 지난해 215 억 1700 만달러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 중임
- 베트남 핸드폰 수출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 수출액은 2015 년까지 300 억달러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투자가 베트남 무역수지 개선과 수출국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임
- 코트라 관계자는 “한국을 중심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확대돼 베트남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며 “특히 제조업 비중이 늘어나 고용창출, 기술이전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
- 국내 기업이 베트남을 생산 거점화하는 것은 중국의 위협요소를 줄이고 중저가 시장에 대응해원가절감을 꾀하기 위해서임
- 해외경제연구소는 “삼성전자가 이전 중국에서 약 150 달러 이하로 스마트폰을 생산해 900 달러 이상에 판매해 왔지만 저가폰이 증가하면서 수익률 둔화 위험이 높아지자 중국보다 인건비가 싼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이라고 분석함
- 또한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 차별 철폐와 세율 인하 등 적극적인 외자유치 우대정책을 확대하고 있음



- 삼성전자의 타이완성 제 2 공장도 4 년간 법인세를 면제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보장된 것으로 알려짐
 - 베트남은 또 소비성향이 높은 소비계층의 증가로 내수시장 성장 전망도 밝다. 베트남은 2025년에는 약 1억 명의 인구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성향이 높은 20~30 대 인구가 2000 년 2600 만 명에서 2015 년 3300 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관측됨
 - 이밖에도 베트남은 아세안 일곱 번째 회원국으로 AFTA 발효 및 2015 년 아세안 경제 공동체 발족 추진 등 아세안 국가간 가교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 한편, 국내 업체들은 이러한 신흥시장을 겨냥한 보급형 스마트폰 출시를 늘리고 출시 주기를 단축하는 등 제품 수를 확대하면서 시장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200 달러 미만의 저가 스마트폰 출시 비율이 2011 년 19%에서 올해 43%까지 커질 것으로 예측됨
 - 이를 위해 업체들은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한 해외 생산 이전 외에도 고기능성 저가형 부품 확보에도 힘쓰고 있음
 - 모바일 AP 의 경우 중국 저가폰에는 대부분 대만 미디어텍 제품이 탑재돼 가격하락을 주도하고 있음
 - 미디어텍은 세계 AP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퀄컴 제품 대비 최대 절반 가량 저렴한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OS 도 파이어폭스나 우분투 등 상대적 저가인 신흥 OS 를 탑재가 늘어나는 추세임
- * 출처: Lifeplaza, 03.18

**내년부터 베트남에 한국경륜 경주영상 송출
베트남 경륜사업 건설공사 한국업체가 맡아**

- 내년부터 베트남에 한국 경륜의 경주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베트남 경륜장 건설공사도 한국 업체가 맡음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베트남과 한국경륜 경주 영상 실시간 송출과 2019 년 하노이 아시안게임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7 일 밝힘



- 양해각서 체결 행사는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의 초청으로 지난 11 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뤄짐
- 공단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국 업체가 베트남 경륜장 공사를 맡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 영국 등 타국 업체들의 참여를 막고 국내 건설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되는 데 큰 역할을 함
- 올해 말까지 베트남 정부의 인허가 후 약 2 억 달러 규모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인 하노이 경륜장은 2 만 명 수용 규모의 전천후 돔으로 건설되며 국내 광명 스피돔을 벤치마킹할 계획임
- 정정택 공단 이사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한국경륜 수출을 통한 사업영역 확대 및 경정사업 국제화의 교두보 확보, 한·베트남 스포츠 교류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함

* 출처: Yonhapnews, 03.17

KIST, 한국·베트남 과학기술원 청사진 공개 발전 경험, 운영 노하우도 지원...내년 상반기 본사업 착수

- 한국경제의 고속성장을 견인하던 한국과학기술원(KIST)의 모델이 동남아시아의 신흥개도국 베트남에 본격 전수됨
- KIST 는 20 일 하노이에서 베트남 과학기술부와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017 년 하반기 출범하는 '한·베 과학기술원(V-KIST)'의 발전 로드맵과 연구장비 지원계획 등을 담은 청사진을 공개함
- V-KIST 마스터플랜에는 KIST 가 지난 48 년간 쌓아온 발전 경험, 운영 노하우 등도 포함됨
- 이번 사업은 지난해 9 월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의 베트남 국민 방문 당시 양국 정상에 체결한 약정에 따른 것으로 정부 무상원조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대(對)베트남 지원사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평가됨
- 아울러 우리나라가 외국의 과학기술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국으로 선회, 한국의 선진 과학기술을 해외에 전수하는 첫 프로젝트로 양국의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KOICA 는 총 3 천 500 만 달러의 사업비를 지원, 오는 2017 년 9 월까지 본관과 연구동, 부대시설을 갖춘 연구원 300 명 규모의 연구소를 설립함
 - 부지에는 향후 기업과의 협력연구 등을 수행할 연구개발(R&D) 센터와 부대시설 등도 단계적으로 들어설 예정임
 - 베트남은 이번 사업을 위해 하노이 외곽의 화락 테크노파크 안의 부지 20ha 와 인프라 시설을 제공함
 - KIST 는 특히 첨단 연구시설과 연구장비 등 하드웨어 구축 뿐만 아니라 운영자문, 교육연수 등 소프트웨어도 적극 지원하기로 함
 - KIST 는 우선 베트남이 경쟁력을 지닌 천연물 기반의 BT(생명공학) 분야와 전자재료·부품 관련 산업 기술에 초점을 맞춰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 아울러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산업기술을 전수하고 장기적으로는 IT 융합, BT 융합 분야의 미래원천기술 개발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함
 - 응웬 꾸안 베트남 과학기술부 장관은 "V-KIST 가 오는 2020 년까지 산업 중심 국가 반열에 진입한다는 베트남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에 적잖은 기대를 나타냄
 - 마스터플랜 수립을 주도한 문길주 KIST 전 원장은 우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자율성과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국과 베트남 정부의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함
 - KIST 는 이날 공개한 마스터플랜을 기초로 베트남 측과 세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본 사업에 착수할 계획임
- * 출처: Yonhapnews, 03.20

설립에 370억 투자...ODA 역대 최대 규모

2017 년 9 월 준공...삼성전자 R&D 센터 등 韓기업 협력 증진 기대

- 한국·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이 2017 년 완공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우리 정부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예산 3500 만 달러(한화 약 370 억원)를 투입해 2017 년 9 월까지 본관과 연구동 및 부대시설 등을 갖춘 연구원



300 명 규모의 V-KIST 를 베트남에 짓고 연구장비 지원과 연구역량 전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0 일 밝혔

○ 이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 ODA(공적개발원조)로 지원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임

○ 이를 위해 베트남 정부는 수도 하노이에서 차로 30 분 거리인 호아락 테크노파크에 20 헥타르(6 만평)의 토지와 인프라 시설을 마련함

○ 이곳에 본관과 연구동, 기업과 협력연구 등을 수행할 기업 R&D(연구개발) 센터와 부대시설 등이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임

○ 1 차 연구분야는 베트남이 강점을 가진 천연물 기반의 BT(생명공학) 분야와 경제 발전에 날개를 달아줄 전자재료·부품 관련 산업기술에 집중한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IT, BT 융합 분야에서 미래원천기술 개발에 나설 예정임

○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책임을 맡고 있는 문길주 KIST 전 원장은 "V-KIST 가 자율성과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V-KIST 특별법 제정, 탁월한 리더십을 갖춘 초대 원장 선임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함

○ KIST 는 "하노이 시내에 R&D 센터 설립을 추진 중인 삼성전자 등 현지 진출한 한국기업들과의 협력 증진은 베트남 측에서도 V-KIST 설립을 통해 기대하고 있는 또 다른 효과"라고 말함

* 출처: mt.co.kr, 03.20

한국, 경제-사회 발전 경험 공유

○ 지난 3 월 6 일 아침, 하노이 발전전략기관과 투자계획부는 2013 년 한국의 지식과 경험을 베트남과 공유하는 사업에 대해 보고하는 워크숍을 주최함

○ 발표를 통해 투자계획부 당후이동(Dang Huy Dong)장관은 "이 사업은 경제-사회 분야에서 발전 경험을 나누기 위해 베트남과 한국 간에 유익한 협력 활동을 전개하는 중요 프로젝트 중 하나" 라고 함

○ 또한 이 사업은 여러 활동을 통해 베트남 정부 기관과 각 간부들에게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정책을 세워 실현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임을 강조함



대한상공회의소

-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의 전대주 대사는 "이 사업은 베트남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정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와 권고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베트남과 한국의 전문가들과 연구진들의 많은 노력의 결실" 이라고 함
- 이 사업은 한국의 경험과 국가안전정책에 관한 능력을 통해 베트남에게 적합한 정책 제시하기, 한국의 경험을 베트남에 전수하기, 베트남 주택 건설 발전 계획 수립, 그리고 환경보호에 관한 입법 등 4 가지 주제로 진행됨
- 발전전략기관의 부이땃탕(Bui Tat Thang) 박사는 이 사업을 얼마 간 시행한 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험과 교훈에 따라 베트남에게 권고한 정책 등이 베트남의 2011~2020 년의 경제-사회 발전 계획 및 전략을 세우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함
- 또한 앞으로 베트남의 잠재력 촉진을 위한 산업계의 발전 전략, 베트남의 인력 발전 전략, 베트남 기업 관리, 베트남 재정 시장의 조기 경보 시스템 설치 등에 관한 주제들이 사업 내에서 의논될 것이라고 함
- 한국의 기획재정부(MOSF)는 2004 년부터 한국의 경제 성장 경험을 공유하여 주변 국가들의 경제, 사회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경제 발전경험 공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고, 발전도상 국가들의 체도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함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18

박삼구 회장 '우호 훈장' 수여 받아

- 지난 3 월 12 일 오후 박삼구 회장은 베트남 하노이 주식공에서 쩡영 떤 상(Truong Tan Sang) 베트남 국가주석으로부터 외국인 대상 국가 최고 훈장인 '우호훈장'을 받음
- 우호훈장은 베트남과의 우호증진 및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수여되는 최고 훈장임
- 하토야마 유키오 전(前) 일본수상, 샘 누조마(Sam Nujoma) 나미비아 초대대통령 등이 받았으며 민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금호아시아나가 수훈하는 영예를 안음
- 특히 이날 수여식에는 쩡영 떤 상 국가주석이 박삼구 회장에게 직접 훈장을 수여했으며 만찬까지 함께 함



대한상공회의소

- 우호 훈장은 베트남 정부가 사회 문화적으로 높은 기여를 한 외국단체나 개인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베트남에서의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기여를 인정한 것임
- 박삼구 회장은 베트남에서 투자활동을 통해 그룹의 발전을 촉진하여 온 동시에 베트남의 경제, 문화, 교육 분야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기여를 해 옴
- 박 삼구 회장의 접견을 받은 응웬쑤언푹 부총리는 경제뿐만 아니라 베트남 민족 문화, 교육에 관련되는 활동을 성공적으로 전개해 온 금호 그룹의 성공을 축하한다고 했다. 부총리는 앞으로도 금호그룹이 각 분야에서 강한 발전을 계속 이룩하길 희망한다고 함
- 박삼구 회장은 훈장을 수여 받은 후 인사말에서 베트남 정부의 귀한 훈장을 받은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금호 그룹 전체의 영광이라고 함
- 금호 아시아나 그룹은 계속 투자를 확대하여 두 나라의 우호 관계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사회,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증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18

◆ 외국진출기업 동향(한국진출기업 제외)

베트남,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로 산업단지 활성화

-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로 인해 추가적인 베트남 산업단지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 산하 경제구역관리부 부회장이인 Tran Duy Dong 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로 지난해 산업단지 투자는 긍정적 전망을 나타냄
-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투자 총액은 2013 년까지 216 억 달러에 달했고, 매년 54.5%의 성장을 기록했으며, 투자 분야의 80%는 산업구역에 특히 많은 수요가 많은 곳은 제조업 분야임
- 외국인 투자자들이 베트남에 공장을 설립할 때 산업단지에 설립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추가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인프라와 물류 네트워크, 중국 등 외국과의 접근성과 같은 좋은 조건들로 인해 하이퐁 항구로의 도로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선정될 것으로 보임



○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규정들은 2014 년 1 월부터 효력이 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는 아웃소싱, IT, 소비자 상품들과 같은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출처: Lifeplaza, 03.14

미국·베트남 군사공조 가속

- 미국과 베트남이 최근 고위급 접촉과 군 수뇌부 회동을 잇따라 갖고 해양안보와 조종사 훈련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등 군사공조를 과시하고 있음
- 18 일 베트남 언론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허버트 칼리슬 미 태평양공군사령부 (PACAF) 사령관은 17 일 하노이를 방문, 도 바 띠 베트남 참모총장 겸 국방차관과 만나 다각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띠 차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과 베트남의 포괄적 동반자관계 수립을 계기로 국방협력이 한층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고위급 대표단의 교류를 한층 활성화하자고 제안함
- 그는 또 베트남전쟁(1965~73 년) 당시의 실종미군 유해발굴과 정보공유, 해양구조, 군사의료 부문에서 관계를 강화해 나가자고 주문함
- 이에 대해 칼리슬 사령관은 베트남 측과 훈련, 군사의료, 자연재해 대응, 구조, 비행 안전 등에서 상호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화답함
- 앞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차관도 지난 4 일 하노이에서 응웬 치 빙 베트남 국방차관과 만나 해양안보 등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함
- 빙 차관은 당시 양국이 국방안보와 불발탄 제거, 해양안보, 전자자 유품 교환 등을 위한 협의를 한층 확대해야 한다며 협력 강화 의지를 피력함
- 특히 베트남 정부가 미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양국 협력을 한층 강화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함
- 셔먼 차관은 양국 해군의 교환방문 확대와 구조활동, 해양안보를 위한 핫라인 구축 등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함
- 지난 1995 년 수교한 양국은 그동안 교역 등 경제부문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왔으나 최근 남중국해에서 강화되는 중국의 영유권 공세를 계기로 국방협력 확대를 한층 추진하고 있음



* 출처: Yonhapnews, 03.18

일본·베트남, 北남치문제·해상경비 등 협력키로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쓰영 썬 상 베트남 국가주석이 18 일 일본 도쿄도(東京都) 총리관저에서 만나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음
- 교도통신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이 외에도 중국이 해양 진출을 활발히 하는 것을 고려해 베트남의 해상 경비능력 향상을 위해 연대하기로 합의함
- 이와 관련, 일본은 베트남의 연안 경비 능력 강화에 필요한 순시선 제공을 위해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함
- 양측은 회담 후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함. 상 주석은 납치 문제에 관해 "힘이 닿는 범위에서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의견을 밝힘
- 아베 총리는 "힘에 기반을 둔 행위는 간과할 수 없다"며 "해양과 항공 질서 유지를 위한 양국의 연대는 지역의 안정에 중요하다"고 강조함
- 일본은 베트남에 사회기반 시설 정비, 원전 건설 계획 지원 등의 명목으로 약 1 천 200 억 엔의 엔 차관을 제공하고 2020 년까지 무역과 투자를 두 배로 늘리기로 함
- 일본이 베트남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이면에는 중국 견제의 목적이 깔린 것으로 분석됨

* 출처: Yonhapnews, 03.18

베트남, 러시아와 핵에너지연구센터 공동 건설

- 베트남과 러시아가 5 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핵에너지연구센터를 공동 설립함. 베트남소리(VOV) 방송 등은 19 일 러시아 전문업체 로사톰 관계자의 말을 인용, 양국이 오는 2020 년까지 중부 산악도시 달랏에 핵에너지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전함
- 수도 하노이에는 핵에너지연구센터 지부가 설치될 것으로 알려짐. 달랏을 방문중인 알렉산드로비치 페르슈코프 로사톰 부사장은 러시아 정부가 이번 사업을 위해 5 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페르슈코프 부사장은 이와 관련해 달랏에 현재 가동 중인 원자로의 30 배 크기인 15 MW급 원자로와 방사능연구소가 들어설 것이라고 설명함
 - 러시아는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1,2 호기 건설사업을 수주한 이후 베트남에 적잖은 공을 들이고 있음
 - 그러나 베트남은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효율성 등을 이유로 애초 올해 시작할 예정이던 중부 닌투언 원전 1 호기 건설공사를 6 년간 연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음
 - 한편 한국은 지난해 7 월부터 베트남의 5,6 호기 원전 수주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음
 - 한국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내년 중순 완료될 예정이며 이후 타당성 조사와 국회 승인 등의 절차가 남아있음
- * 출처: Yonhapnews, 03.19

SBV, 외국인 간접 투자는 베트남 동화 기준

- 베트남 중앙은행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4 년 4 월 28 일부터 베트남에 투자되는 외국인 간접 투자 활동은 승인 은행에서 개설한 간접 투자용 계좌를 통한 베트남 '동화'만 거래 가능함
 - 이에따라, 채권의 매매, 투자, 비상장 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미등록 베트남 기업의 주식 지분 매매는 전부 베트남 동화만 거래할 수 있음
 - 계좌 잔액을 금융 기관 또는 외국계 은행 지점으로 옮기는 것도 인정되지 않음
- * 출처: Tienphong.com, 03.14

베트남-EFTA 간 FTA 연말 타결될 듯

- 베트남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올 연말에 최종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베트남 언론이 20 일 보도함
- 베트남소리방송(VOV) 등은 부 후이 황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이 19 일 하노이를 방문한 모니카 마랜드 노르웨이 통상산업부 장관과 만나 상호 FTA 협상을 서두르기로 했다고 이같이 전함



대한상공회의소

- 양측은 이날 FTA 타결시 양측의 통상관계가 한층 촉진되고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함
 -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FTA 협상 외에 수력발전과 부품산업 등에서 상호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함
 - 이에 대해 마렌드 장관은 베트남과의 FTA 협상에 박차를 가해 통상관계를 더욱 발전시키자고 화답함
 - 양측은 이밖에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인적 교류를 한층 활성화하기로 함
 - EFTA 는 유럽연합(EU)에 가입하지 않은 스위스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 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음
- * 출처: Yonhapnews, 03.20

일본, 베트남 예술 분야 대폭 지원

- 지난 3 월 12 일 일본 대사관 스즈키 히데오(Suzuki Hideo)임시대표는 하노이에서 베트남 뚜이찌 극장 쓰엉누안(Truong Nhuan) 사장과의 협약식에서 '베트남 뚜이찌 극장의 시설을 업그레이드 하고 기술과 공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프로그램' 을 지원한다고 밝힘
- 프로젝트의 총 예상 비용은 17 억 동 이상이고 이것은 일본 대사관과 일본 문화 교류센터를 통한 일본 정부의 문화 무상원조 프로젝트 중의 하나임
- 현재 뚜이찌 극장의 시설은 매우 열악하여 보수와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극장에 있는 디지털 오디오 장치 및 조명기구가 거의 고장난 상태이며 2004 년에 설치된 오래된 제품이라서 국제 수준에 맞는 예술프로그램을 공연할 수준에 못 미침
- 상기 프로젝트 외에 일본 국제 교류기금은 뚜이찌 극장에 소속되어 있는 총 15 명의 배우, 감독, 무대 디자이너, 무대의상 담당자, 음향기술자 그리고 조명담당자들을 위해 3 월 17 일부터 23 일까지 단기 연수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임



대한상공회의소

- 연수자들은 일본극장의 큰 무대에서 선진적인 시스템을 견학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렇게 베트남 예술가들에게 인적, 물적 지원과 함께 연수의 기회를 주는 것은 베트남 예술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
 - 문화체육관광부의 브엉주이비엔(Vuong Duy Bien) 차관은 뚜이찌 극장 지원 방안에 대해 '베트남 뚜이찌 극장의 시설을 업그레이드 하고 기술과 공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것은 베트남 문화 활동 특히 공연 예술에 대한 일본의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함
 - 이 프로젝트를 통해 베트남 예술가들은 전문화된 최상의 시설에서 공연을 하게 되므로 공연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객들에게도 인상 깊은 공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스키 히데오 임시대표는 뚜이찌 극장이 베트남에서 공연문화를 확산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특히 청소년을 위한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세대의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임
 - 지난 몇 년 동안 일본은 베트남의 문화와 교육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이러한 문화교류가 베트남과 일본의 관계를 점점 발전시킴
 - 또한 이 프로젝트 안에 있는 예술 공연 프로그램들이 공연 문화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일본은 2014 년에 클래식 예술분야에서 공연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베트남 교향악단에 50 만 달러를 지원하고 올해 10 월에는 호찌민 HBSO 교향악단을 일본에 초청함
-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18

외국인 광고회사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 비용

- 베트남 재무부는 외국인 광고회사가 베트남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때 허가서 발급 비용에 관한 시행세칙 초안을 작성하는 중임
- 이 초안에 의하면 외국인 광고회사는 베트남에 대표사무소를 새로 설립하거나 재 설립하는 경우와 허가서를 변경하거나 보충하는 경우에도 대표사무소를 개설하는 지방의 성급 인민위원회에 요금을 납부해야 함



- 재무부의 시행세칙 초안에 따르면, 외국인 광고회사는 베트남에 대표사무소를 새로 설립할 때 허가서발급 비용으로 허가서 1 개당 300 만 동(VND)을 납부하여야 하고, 허가서 재발급 및 허가서 변경, 보충의 경우에는 허가서 1 개당 150 만 동임
 - 또한 재무부는 외국인 광고회사의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허가서 발급 비용을 베트남 동화(VND)로 납부해야 할 것을 규정함
-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18

◆ 베트남기업 동향

82 개 기업 국가 품질 상 받아

- 지난 3 월 11 일 하노이(Ha Noi)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13 년 국가 품질 상 조직위원회는 20 개 기업에 금상을, 62 개 기업에는 은상을 수여하여 총 82 개 기업이 수상한다고 밝힘
- 품질기준총국 쩐반빈(Tran Van Vinh) 부국장에 따르면, 2013 년 국가품질상 금상을 수상한 20 개 기업 중에는 10 개의 대기업과 4 개의 중소기업, 4 개의 대형 서비스업 관련 기업과 2 개의 중소 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함
- 하노이의 비글라세라(Viglacera)사, 박장(Bac Giang) 성의 하박(Ha Bac)화학비료 회사, 람동(Lam Dong)성의 빈딘(Binh Dien) 회사, 하노이 무역은행, 팡남의 (Quang Nam) 아동(A Dong) 실크 무역 및 여행사와 같은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여 시장에서 신뢰를 쌓고 브랜딩을 해옴
- 또한 2013 년 아시아태평양 국제 품질 대상에서는 대형 서비스업 부문 최우상에 비에트인 뱅크(Vietinbank)가 대형 제조기업 부문 우수상에 트라파코(Traphaco)사가 수상하여 2 개의 베트남 기업이 이름을 올리기도 함
- 국가 품질상은 우수한 생산품질, 비즈니스 서비스를 이루어낸 기업에게 국가 차원의 보상과 명예를 부여하는 상임
- 이는 베트남 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외 경쟁력을 높여 국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높이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자리임



- 1996년부터 2013년까지 1,500개 이상의 기업이 국가 품질상을 받았고, 31개 기업이 GPEA 상을 수상했다. 과학기술교육부는 2013년 국가품질 대상 금상에 20개의 기업에 대한 추천서를 정부에 제출함
- 2013년 국가 품질상 시상식은 3월 16일 하노이에서 열리며, VTV1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됨
-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18

베트남 중앙은행 재할인율 0.5%포인트 인하

- 베트남중앙은행(SBV)이 시중은행에 적용하는 특별대출 금리와 재할인율을 오는 18일부터 6.5%와 4.5%로 각각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함
- 응웬 동 띠엔 SBV 부총재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6개월 미만의 동화 예금이자율 상한도 종전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고 말함
- 미 달러화 예금금리의 상한 역시 현행 1.25%에서 1%로 하향 조정됨. 이에 대해 관측통들은 SBV가 만성적인 인플레이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했다는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향후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함. SBV는 올해 여신 증가율을 12~14%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 * 출처: Yonhapnews, 03.17

II. 베트남 산업/정책/기타 주요뉴스

2014년 1~2월 외국인 방문객 33.4% 증가

- 2014년 1~2월 외국인 방문객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3.4% 증가한 160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남
- 이같은 결과는 베트남 정부가 계획한 연간 방문객 800만 명의 목표와 대비하여 약 20%를 달성했다. 이같은 결과는 독일의 262.7%, 중국의 50.1%, 캄보디아의 36.9%에 이어 네번째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



○ 베트남 문화체육부는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여 2015년에는 한층 더 방문객을 늘릴 예정이다

* 출처: Vietnamplus.vn, 03.04

**성장의 또다른 기회...동남아서 영그는 ODA사업
베트남·미얀마 "한국 EDCF·KSP 사업 확대" 요청**

○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서북쪽으로 50 km 가량 떨어진 홍강 상류. 이곳에서는 낙후된 하노이시 외곽의 손 타이(Son Tay)와 빈 옌(Vinh Yen) 지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4.4 km의 교량 건설이 한창임

○ 한국 정부의 경협자금(EDCF) 1 억달러(1 천 70 억원)가 투자된 '빈틴 교량건설사업(Vinh Tin Bridge Project)'임

○ 당초 내년 1 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사를 맡은 GS 건설이 공정을 앞당겨 오는 6 월말 개통됨

○ 이 교량은 홍강을 횡단하는 4 번째 다리로 완공되면 이 강으로 분리된 서북부지역과 하노이간의 물류이동이 활발해져 지역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하노이로 출근하기 위해 매일 낡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했던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한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베트남과 미얀마에서 힘을 내고 있음. 한국이 해외에 쏟아붓는 원조규모는 유상차관 57 억달러, 무상원조 70 억달러 등 총 127 억달러(13 조 6 천억원)에 달한다. 불과 2000 년까지만 해도 한국이 OECD 의 원조 수혜국 리스트에 있던 점을 감안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함

○ 원조는 주로 아시아지역에 집중돼 있다. 1987 년부터 2012 년까지 개도국에 공여한 원조액 107 억 달러의 44%가 아시아 지역에 투입됐다. 약정 기준으로 보면 베트남이 27 억 4 천만달러로 가장 많음

○ 한국의 대 베트남 ODA 규모는 연간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중국이나 일본의 10 분 1 수준에도 못 미침



-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두 나라보다 한국의 투자확대를 원한다. 특정 국가에 치우칠 경우 경제 의존도가 심화할 수 있는데다 역사적으로 침략의 경험이 있는 두 나라에 비해 한국이 심정적으로 가깝다고 여기기 때문임
- 한국의 발전경험을 전파하는 지식공유사업(KSP)도 매력을 높이는 요인임. 당 후이 동(Dang Huy Dong) 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은 "2011-2020 년 경제사회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KSP 가 크게 기여했다"며 "많은 나라, 기관으로부터 정책자문을 받고 있지만 한국의 정책자문이 베트남의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함
- 베트남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빈턴교량건설사업 등 22 개 프로젝트 외에 남북간 고속철도, 신공항, 항만 등 건설사업에 한국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계획임
- 쯔영 떤 비엔(Trung Tan View) 베트남 교통부 차관은 "한국의 EDCF 로 베트남 교통분야 인프라가 크게 늘고 있어 고맙게 생각한다"며 "고속철도나 호치민 신공항건설, 항만 사업 등에도 진출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함
- EDCF 와 KSP 를 통해 양국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한국기업의 베트남 수주활동도 점차 성과를 내고 있음
- 당 차관은 "ODA 규모에 비해 한국기업의 프로젝트 수주율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포스코 E&C 가 2 억달러 규모의 노키아 공장설립 계약을 체결한 게 단적인 예"라고 설명함
- 베트남과 달리 미얀마에서의 EDCF 사업은 초기 단계다. 작년말 기준으로 8 개 사업에 2 억 4 천만달러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다. 미얀마의 전체 EDCF 승인액중 2.4%임
- 2000 년 사업을 완료한 양곤항 인근 보다퉁(Botahtung) 지역의 컨테이너야적장 건설사업이 대표적임
- 미아 탄 미얀마 항만청 기술국장은 "미얀마 무역의 85%가 항만을 통해 이뤄지고 양곤은 항만에서 90%의 물류가 진행된다"며 "한때 텅 비어 있던 이 야적장이 2000 년 이후 연평균 18%씩 물량이 늘어 비좁아진 상태"라고 말함
- 최근 한국정부는 미얀마의 요청을 받아 양곤과 빈민지역인 달라를 연결하는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현재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연내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토지보상 등을 거쳐 연말이나 내년초에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음



- 이 사업은 건설비용만도 1 억 4 천 600 만달러에 달하는데다 완공되면 물류 및 교통흐름 개선은 물론 양곤시의 입체적인 도시계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EDCF 와 달리 미얀마에서 KSP 사업은 안정적인 정착 단계다. 2011 년부터 경제개발, 금융, 농촌개발 등 11 개 주제의 정책자문 사업이 진행됐고 작년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본뜬 미얀마개발연구원(MDI) 설립을 지원하고 농촌 지도자를 양성하는 등 6 개 사업을 함
- 툰 툰나인 미얀마 국가기획경제개발부 국장은 "KSP 를 보면 한국이 성공했던 사례, 경험, 위기 극복과정이 들어 있어 경제성장의 모범"이라며 앞으로도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길 희망함
- 한국 정부는 최근 KSP 를 중심으로 EDCF 와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을 묶어 경제협력의 질을 높이고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 하는 전략을 구사함
- 미얀마 KSP 사업의 수석고문을 맡은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미얀마를 중심으로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 주변 인구를 더하면 30 억명에 이르러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며 "이런 시장을 통해 한국경제 대도약의 기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함
- 허경욱 고문도 "현재 KSP 사업이 1 년 단위로 진행되는데 좀 더 길게 볼 프로젝트가 많다"며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오랜 시간 공들여 마음을 얻는다는 생각으로 핵심 그룹 중심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임

* 출처: mt.co.kr, 03.19

베트남, 2013년 천연고무 생산량 세계 3위

- 베트남 천연고무 생산자 협회(ANRPC)에 따르면, 베트남의 천연 고무 수확량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를 제치고 세계 3 위를 차지함
- 2013 년 베트남 천연 고무 수확량 전망은 전년 대비 +20.8% 증가한 104 만 3000t 이 되어 연간 수확량 순위에서 지난해 세계 5 위에서 3 위로 상승했다. 베트남 천연 고무 수확량이 100 만 t 을 상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출처: Dangcongsan.com, 03.17



중국·대만, TPP 타결 겨냥 베트남 섬유투자 확대

- 베트남의 주요 산업인 섬유부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 때 최대 수혜업종으로 떠오른 가운데 중국 등 주변국 섬유업체들의 베트남 투자가 본격 확대되고 있음
- 17 일 베트남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의 지양수율룬섬유그룹은 최근 북부 남딘성에 6 천 800 만 달러를 투자, 섬유염색방적 공장을 설립키로 하고 베트남 당국의 투자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됨
- 남딘성 당국은 지양수율란섬유그룹 공장이 2016 년 중반에 본격 가동, 연간 9 천 816t 의 방적사와 2 천 160 만m 상당의 직물을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색능력은 연간 2 천 400 만m에 달할 것으로 관측됨
- 홍콩의 한 섬유업체도 남딘 성에 1 천 ha 규모의 섬유의류공단을 조성하는 방안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이 업체의 상호와 공장 가동시기, 생산량 등은 공개되지 않음. 대만의 섬유업체 포레버글로리어스 역시 남부 호찌민 지역에 5 천만 달러를 투자, 수장 스포츠용 의류와 악세서리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할 계획임
-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 유명 브랜드 제품을 생산, 납품하는 심천인터내셔널사의 계열사 '케인력키'도 호찌민에 1 억 4 천만 달러를 투자, 45ha 규모의 디자인·생산센터를 설립하기로 함
- 관측통들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TPP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미국과 캐나다, 호주, 일본 등 TPP 가입 국가들이 적용하는 섬유제품 수입관세가 큰 폭으로 낮아져 핵심 섬유생산국인 베트남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음
- 특히 베트남의 최대시장인 미국의 경우 현재 17~32%선인 섬유제품 수입관세가 더 이상 부과되지 않아 기대를 모으고 있음
- 다만 이들 섬유제품이 무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TPP 회원국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해야 하는 등 다양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함
- 재계 관측통들은 베트남 업체들의 경우 대규모 투자 여력이 없는 만큼 외국업체들이 더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함

* 출처: Fnnews.com, 03.17



하노이, 34 건의 프로젝트와 함께 토지사용권 경매 예정

- 각 현과 도시에 어울리는 새로운 농촌을 형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토지 사용 요구를 해결하며, 2014 년에 더 많은 예산을 거두어 들여 정부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하노이 시는 34 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총 면적 약 42.65 헥타르인 토지의 사용권한을 경매하겠다고 밝힘
- 현재는 총 사용 면적 41.67 헥타르인 33 개의 프로젝트가 인프라 시설을 모두 구축하여 1 분기나 2 분기 안에 경매를 진행하기에 알맞은 조건을 모두 갖추었으며, 남은 하나의 프로젝트 또한 기술 인프라 시설의 투자건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올해 3, 4 분기 안에 경매를 주최 할 것이라고 함
- 프로젝트 경매 절차를 확실히 하기 위해 하노이 시는 재정사무소가 1 분기 안에 경매를 주최할 조건을 갖춘 33 개의 프로젝트에 대한 경매 개시 가격 결제 관련 기관들과 협력할 것이다. 동시에 각 경매기관에게 자금 회전을 증가시키고 자금을 보존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하도록 함
- 하노이 시가 현재 가장 주시하고 있는 것은 켄우자이(Cau Giay)군 직봉(Dich Vong) 현에 속한 50.7 헥타르의 토지 사용권한 경매 프로젝트로, 오는 2 분기 안에 남은 면적을 급히 경매해서 빨리 토지사용권을 넘겨주어야만 토지가 올바르게 못한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토지를 침해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함
- 각 현에 경매를 진행 할 수 있는 정리된 토지가 남아있지 않거나 기술 인프라 시설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각 현에 토지 경매를 통해 예산을 거두어들이고 새로운 농촌을 투자 건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술 인프라 시설을 형성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어준다고 함
-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도시토지발전 기금의 자금이 집행되는 프로젝트들은 2014 년 안에 토지 경매를 주최하기 위한 토지들에 집중되었으며, 각 현에 소속된 새로운 프로젝트들은 도시의 지도가 있을 때에 자금 집행이 가능하다고 함
- 그 외에 면적 5000m² 이하의 작은 규모의 토지들은 각 군, 현, 읍의 기관들이 직접 규정에 따라 경매 주최 계획을 세우고, 투자 효과성에 대한 책임을 지며 투자가 취소되어 자원을 낭비하고 황무지로 남아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함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18

언론기관 설립허가서 발급 일시적으로 중지

- 베트남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등재한 내용에 의하면 정보통신부는 언론기관 설립허가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도록 하며, 목적이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신문에 대하여 검사하여 점차 그 수를 줄여 나갈 것을 언급함
- 이 같은 내용은 지난 3 월 10 일 진행된 1 월 및 2 월의 국가 기관부처 정기회의에서 발표한 정보통신부 장관 응웬박손(Nguyen Bac Son)의 말임
- 응웬박손 장관은 정부에 의해 발행된 통보 내용을 인용하며, "정부의 통보 내용에 언급된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에 제출하는 2020 년까지 전국의 신문사 관리계획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언론기관 설립허가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동시에 목적이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신문을 검사하여 신문사 수를 줄여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함
- 2020 년까지의 신문에 관한 관리 계획은 올해 4 월 안으로 승인 받을 예정이다.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등재한 응웬박손 장관의 말에 의하면 2020 년까지 신문에 관한 계획은 신문개혁 일환으로 수량이 적정하여야 하고 품질이 높고 사회의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임
- 2013 년 11 월 국회에서 발표한 응웬박손 장관의 말에 의하면, 현재 전국에는 838 개의 언론기관이 있고, 이중 신문은 199 개이며, 67 개의 방송국이 있음
- 이들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기자는 현재 17,000 명이다(공식적으로 기자카드 발급 받은 자). 정보통신부 장관은 향후 언론기관들은 베트남 공산당 및 국가의 정책 지침, 정부의 경제-사회 개발정책, 헌법실시에 대한 보도에 집중해야 하고, 또한 언론기관(분야별로 신문을 포함)들이 이적 행위를 반대하는 보도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지도함
- 응웬박손 장관은 "2020 년까지 언론기관들은 경제적 자립을 갖춰야 하며, 국가는 산악지대나 먼 곳에 있는 언론기관에 대하여서만 지원해 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전자신문은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해 앞으로 주력 미디어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함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18

베트남 오토바이시장, 2년 연속 부진에 이어 올해도 침체 예상

- 오토바이 제조사들은 수요 정체로 인해 올해 경쟁이 격화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Honda Vietnam 은 올해에도 2013 년과 동일한 수준인 2 백 8 십만 대 판매를 예측하였고 Honda Vietnam 의 사장은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시장은 계속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함
- 작년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판매가 부진했고, 전년 대비 10% 가까이 하락하면서 2년 연속 판매 감소를 보임
- 2012년에는 3 백 1 십만 대가 판매되었는데 이는 2011년 대비 판매량이 6.6% 감소한 수치이다. 이러한 판매 감소로 Honda, Yamaha, Suzuki 그리고 Piaggio 와 같은 대기업들이 마진을 낮추고 가격을 인하함
- 지난 2년 간의 소비량을 고려할 때 현재의 생산가능규모는 소비량의 2 개에 달한다. Honda, Yamaha, SYM, Suzuki 그리고 Piaggio 5 대 외국 자본 업체들의 총 생산량이 5 백만 대로 일부 제조사들은 해외로 수출을 해야 하는 상황임
- 베트남 오토바이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베트남 오토바이협회가 이번 달 추범할 예정으로 협회는 5 대 외국 투자업체들로 구성되는데 이들이 베트남 오토바이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 출처: Lifeplaza, 03.14